



다이이치생명, 중국 내 생명보험회사 설립 인가 취득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은 11월 11일 중국 보험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 내 5대 전력회사인 중국화전 집단공사와 공동 설립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중국 보험당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발표함.
 - 다이이치생명의 투자규모는 중국 내 외국계 자본의 출자규제 상한인 50%에 해당하는 약 60억 엔이며, 양 회사가 공동 생명보험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은 총 120억 엔인 것으로 알려졌다.
 - 동 공동 설립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중국 보험당국으로부터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본인가를 취득한 후 2012년 중 북경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.
- 공동회사의 설립에는 일본 내 보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다이이치 생명과 중국 내 금융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화전집단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.
 -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일본에서 4위권의 생명보험회사로 2010년 4월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,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호주의 타워 보험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인수하는 등 출자나 M&A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 - 또한, 중국화전집단은 2010년 약 1조 5천억 엔 규모의 매출액과 약 300억 엔의 순이익을 거둔 전력 그룹으로 5개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총 412개사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, 최근 중국 내 은행, 손해보험 회사, 증권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다이이치생명은 향후 신설 생보사에 상품개발, 리스크관리, 판매기법 등 보험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고, 중국화전집단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, 자원,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개인보험을 적극 판매할 계획임.
 - 한편,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보험회사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니혼(日本)생명, 메이지(明治)생명, 스미토모(住友)생명, 미즈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화재 등이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영업 중에 있음.

(신일본보험신문사 11/15, 니혼게이자이신문, 로이터통신, 시사통신 11/11 뉴스종합)